



## 세계주교시노드 교구 단계 제1회기: 경청 단계

지난 10월 17일 주교좌성당에서의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시노드 교구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. ‘만남의 시간’ 이 되어야 할 이번 시노드는 무엇보다 각 본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. 모든 이가 용기와 담대함으로 자유롭게,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소리를 내어 참여해야 합니다.

교구의 경청 단계(2021년 11월~2022년 1월)에서는 매월 대화와 협의의 주제 질문을 나누어 드립니다.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. 모든 신자들은 각 본당의 사목회장, 총구역장, 본당 신부에게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.

11월에 나누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“**친교**”입니다. **친교**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신비입니다. 이 친교의 일치는 ‘우리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공동의 체험을 나누며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’ 으로서, 이것이 시노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.

### 1. 여정의 동반자: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.

- 우리 공동체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 모두 ‘함께 걸어가고’ 있습니까?
-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소외되어 있습니까?
- 공동체의 ‘친교’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, 또한 소외됨 없는 친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?

### 2. 경청: 시노드적 태도로서 편견 없이 열린 정신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요청됩니다.

- 우리 공동체는 평신도,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,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있습니까?
- 우리 공동체에서 경청을 돕는 것은 무엇이며, 또 반대로 경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?
- 우리 공동체에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들,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며 사회의 배척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?
- 우리 각자는 경청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?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경청하는 데에 충실하며,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### 3. 발언: 모든 이가 자유와 진리와 사랑으로 발언하도록 초대됩니다.

- 우리 공동체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리와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?
- 우리 공동체에 용기 있고 솔직하며 책임감 있는 발언을 돕거나 또는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?
-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이는 누구이며, 그들은 어떻게 선발되고 있습니까?  
그렇게 선발된 이는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언합니까?